

왼손잡이의 비밀



박 태 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위원



전체 인구의 5~10%를 차지하는 왼손잡이는 늘 소수파였다. 이들은 아주 오래된 문헌이나 예술작품에 종종 등장한다.

고대 예술품에 그려진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비율도 요즘과 별로 다르지 않다..

소수파인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 뿌리가 깊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영어의 'sinister'는 불길함과 사악함을 뜻한다. 불어의 'gauche'도 사회적·육체적 결함을 가리킨다.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로 제한하기도 했다. 티베트의 세르파는 과거에 용변을 본 뒤 화장지 대용으로 왼손을 사용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쓰도록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식사하는 손은 오른손으로 제한돼 있다.

서양의 상류층에서 인기 높은 폴로경기 시엔 오른손만 사용 가능하다. 왼손을 쓰면 경기가 위험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미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선 오랫동안

안 왼손잡이 복서를 링에 세우지 않았다. 이번엔 경기가 화끈 달아오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왼손잡이에 대한 이런 편견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과학자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왼손잡이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원래 오른손잡이였던 그는 일부러 왼손을 익혔으며 자신이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왼손으로 서명했다.

그러면 누가, 왜 왼손잡이가 되는 것일까?

조부모·부모로부터 왼손잡이가 될 유전자를 전해받는다라는 이론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왼손잡이가 되는 원인을 다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조부모나 부모가 왼손잡이인 경우, 그 자손이 왼손잡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콩 심은데 콩 난다'는 멘델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유전적으로 같은 사람인 일란성 쌍둥이이면서 왼손잡이인 사람을 살펴봐도 유전설의 허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유전 이론이 맞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둘다 오른손잡이거나 왼손잡이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선 일관성 쌍둥이가 둘 다 오른손잡이인 경우가 80%, 둘 다 왼손잡이인 경우가 4%, 서로 다른 손을 사용하는 경우가 16%였다.

뇌의 어떤 쪽을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갈린다는 이론도 있다. 오른손잡이는 좌뇌를 주로 쓰는데 반해 왼손잡이는 좌뇌와 우뇌에 적절히 기능을 분담시킨다는 것이다.

어릴 때의 우연한 경험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로 가르든다는 의견도 있다. 왼손잡이인 부모·형제·친척 등의 흉내를 내다가 자연스럽게 왼손 구사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

태어나면서 좌뇌의 손상을 입은 아이가 왼손잡이로 자라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반대로 출생시 우뇌를 다치면 오른손잡이가 된다고 한다.

출생 시 좌뇌를 다치면 자연히 우뇌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왼손잡이가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오직 뇌의 손상만이 왼손잡이·오른손잡이를 나누는 기준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출생 시 좌뇌 또는 우뇌가 다칠 확률은 반반으로 본다면 금방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왼손잡이가 인구의 5~10%에 그치는 이유

가 설명되지 않는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약하다', '사고를 잘 당한다', '수명이 짧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왼손잡이를 낙담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말자. 왼손·오른손잡이의 구분이 분명한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왼손잡이의 수명이 오른손잡이보다 평균 3.7년이나 더 길었다. 또 왼손잡이의 사고율이 다소 높은 것은 대부분의 작업환경이 오른손잡이를 위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왼손잡이 자녀에게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것을 강요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이는 아이(특히 남아)에게 무척 괴로운 일이다. 왼손잡이가 되려는 경향이 남성 쪽이 더 강해서다. 미국에서 9세 이하의 왼손잡이 어린이에게 오른손으로 글씨 쓸 것을 유도한 결과도 여아의 60%, 남아의 20%가 교정됐다.

왼손잡이 자녀에겐 그냥 왼손을 쓰게 해야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견해도 있다. 오른손만을 강요하면 발육장애·기억력과 집중력 저하·언어발달 장애 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아이가 심한 스트레스·열등감을 느끼고 노이로제·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면 좌뇌는 과도한 부담을 안는 반면 우뇌는 빈둥거리는 상태가 된다. 양쪽 대뇌의 업무량이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오른손잡이도 가끔 왼손을 쓰는 것이 좋다. '왼손잡이의 뇌'인 우뇌가 관장하는 직관력·창의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요컨대 왼손잡이는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수많은 편견이 있지만 다 근거가 희박한 것들이다. 🌈

